

국제결혼 부부간 발생하는 피학대 경험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관계

나카시마 노조미
(오카야마현립대학교)

박 인 아*
(호남대학교)

박 지 선
(오카야마현립대학교)

김 정 속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나카지마 카즈오
(오카야마현립대학교)

본 조사는 상대적 자원이론과 좌절-공격이론을 기초로 국제결혼 부부간에 발생하는 피학대 경험과 부부간 차이 등과 관련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간의 관계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2009년 충청남도 16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의 남편과 부인으로 하였다. 통계분석에는 남편과 부인에 대한 기본적 속성, 가족형태, 결혼경로, 피학대 경험에 모두 응답한 589명(남편 415명, 부인 174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토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남편 데이터에서는 CFI가 0.968, RMSEA가 0.043, 부인 데이터에서는 CFI가 0.993, RMSEA가 0.046으로 통계학적 허용기준을 충족시켰다. 남편의 피학대 경험은 부인과의 경제차이, 언어차이,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결혼, 확대가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피학대 경험은 남편과의 연령차이, 언어차이,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에서 피학대 경험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을 제외하면 그다지 큰 수치는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제결혼 부부간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에 의한 단기간이면서 때로는 잘못된 정보로 성립된 결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주요용어: 국제결혼가정, 가정폭력, 국제결혼중개, 부부간 차이

* 교신저자: 박인아, 호남대학교(iapark@honam.ac.kr)

■ 투고일: 2011.7.2 ■ 수정일: 2011.9.23 ■ 게재확정일: 2011.9.26

I. 서론

통계청의 인구동태자료에 의하면, 2009년 총 결혼 중 외국인과의 결혼 비중은 10.8%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건수가 국제결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59.8%, 2004년 72.5%, 2009년 75.5%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통계청, 2010). 이러한 추세는 결혼적령인구의 성비 불균형에 따른 결혼시장의 압박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김두섭, 2006). 한편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위장결혼이나 국제결혼중개업자의 허위 정보 제공 또는 정보의 은폐로 학대나 착취 등의 문제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2008년 『국제결혼중개업관리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법률시행 이후에도 다문화가족의 가정 내 폭력 및 살해사건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구성된 부부의 특징으로 부부간 연령차가 평균 10세로 그 차이가 크고, 학력차이가 크다는 점, 국제결혼이주여성의 4~5명 중 1명이 의사소통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0).

다문화가족의 연령차와 학력차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부간 연령차와 학력차는 결혼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두섭·이명진, 2007), 부부간 권력이 불평등하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김오남, 2005).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결혼경로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힘을 약화시키고,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있다(변화순 외, 2008; 임인숙 외, 2010).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혼인상태로 한국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상태로 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국적법 6조 제2항)해야 하기 때문에 국적 취득까지 국제결혼이주여성은 불안정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부부관계 및 가정폭력에 관해 연구한 Blood와 Wolfe(1960)의 연구를 살펴보면, 부부간 권력관계에 대해 상대적 자원(수입, 교육 등)을 통해 보다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Berkowitz(1993)는 이러한 가정폭력을 조장시키는 모델로 7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가정 내 우세와 열세를 들 수 있다. 이를 다문화가족 부부에 대응시켜보면, 부부가 각각 가지고 있는 자원과 그 차이에 따라 한

쪽은 우세한 입장에, 다른 한 쪽은 열세, 즉 약자의 입장에 놓이게 된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남편과의 연령차나 학력차가 크다는 점에서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다문화가족 부부의 특징이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한 연구들은 주로 실태조사와 질적 연구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과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에 관련한 요인을 찾아 그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지원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2007년 경찰청이 발표한 가정폭력 자료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건수는 아내에 대한 학대가 83%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어서 남편에 대한 학대가 2.2%였는데 이는 아내학대와 함께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가정폭력유형인 노인학대와 아동학대보다 많은 비율이다(서한기, 2007). 따라서 다문화가족에 있어서 남편의 아내학대 뿐만 아니라 아내의 남편학대에 대한 문제도 무시할 수 없고, 이에 아내와 남편 양방의 피해학대에 이르는 요인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에 있어서 가정폭력과 학대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상대적 자원가설과 좌절-공격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부간 차이 등에 관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피해학대 경험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연구모형을 구축하여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1. 상대적 자원이론

Blood와 Wolfe의 자원이론(Resource Theory, 1960)에 따르면, 자원이 권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즉, 권위에 대한 신념과 같은 가치체계는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권력은 각자가 기여한 상대적 자원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장주영, 2007). 이들의 주장은 각 배우자가 소유한 자원의 상대적인 양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권력의 양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지닌다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자원이론(relative

resource theory)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여기서 자원이란 한 쪽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써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그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말한다(Blood & Wolfe, 1960). 따라서 자원을 주고 권력을 대신 받는다는 점, 그리고 권력이 교환될 자원의 불균형적 분배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상대적 자원이론은 교환이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윤현봉, 198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이 경험하는 부부간 피학대경험은 부부간 권력관계에서 비롯되는 역기능적 현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즉, 국제결혼가정내 아내가 경험하는 남편으로부터의 학대경험은 사회적으로 돈이나, 지식, 존경심 등과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남성이 여성들에 비해 육체적으로 센 힘을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부족한 자원을 충족시키고자 함에서 비롯된다고 설명되어질 수 있다(박애경, 2005). 또한 일반가정의 여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결혼이주여성은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2. 좌절-공격이론

좌절 - 공격이론(frustration-aggression theory)에 따르면 공격성은 좌절을 선행조건으로 발생한다. 즉, 좌절에 의해 야기되는 가장 강력한 반응은 좌절의 근원이라 여겨지는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향하는 공격적 행위라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 좌절감은 어떤 목적의식적인 행위가 방해될 때 가장 커지는데 특히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을수록 좌절감이 커지고 그 결과로 공격성이 일어난다는 것이다(Dollard & Miller, 1939). 그러나 이 이론은 이후에 Berkowitz(1993)에 의해 수정되었는데, 욕구 좌절이 공격행동으로 이행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욕구좌절의 경험여부 보다는 욕구좌절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격충동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공격행동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외부상황에 둘 경우에는 공격성이 증가하고, 자기상황에 둘 경우에는 감소된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상황에 둘 경우에도 공격불안이 있을 경우에는 공격충동이 공격행동으로 이행되는 과정이 차단된다는 것이다(서미경, 1997).

특히 가족 내에서는 각 구성원에게 좌절을 줄 수 있는 많은 시간과 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격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가족구성원들 간의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가정폭

력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윤순자, 1999). 결혼은 부부 모두에게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을 요구한다. 특히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이들이 경험하는 크고 작은 문화적 차이는 결혼초기 대부분의 부부가 경험하는 갈등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과정에서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의사소통, 사회적 재정적 자원의 부족, 차별 등이 있다(Hovey & Magana, 2000). 다른 문화 간의 적응에 있어서 의사소통능력은 부부생활의 갈등 및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Nah, 1993). 결혼이민여성들은 결혼을 통하여 경제적 운택과 본국의 가족들에게도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홍달아기·채옥희, 2006)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결혼이민여성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현옥·황혜원, 2009). 실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63.1%가 모국에 있는 부모나 형제에게 생활비를 보낼 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60.0%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용돈이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김영주 외,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부부간 발생하는 남편의 아내로부터의 학대경험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이주해온 여성이 결혼 후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좌절과 어려움을 남편에 대한 적극적 또는 소극적 폭력행동으로 표출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3. 국제결혼 부부간 학대경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국제결혼 부부간 학대경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연구한 조윤오(2010)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주여성의 연령은 국적과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배우자의 직업을 통제한 후에도 피해대 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력의 경우에도 연령과 국적, 배우자의 직업을 통제한 후에도 이주여성의 피해대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증가할수록 신체적 학대를 당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관계를 부부갈등과 학대로 구분하여 살펴본 김오남(2006b)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주여성의 국적, 교육수준 등을 통제한 후에도 한국어 능력은 부부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은 부부갈

등과 함께 피학대 경험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99명의 한일 국제결혼 여성을 대상으로 부부 갈등을 조사한 이병기(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편과 부인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낮을수록, 월 평균 수입이 적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안산시 결혼이민여성을 중심으로 부부갈등요인을 조사한 김순이(2009)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부부와 비교해 국제결혼 남성의 학력이 낮고 가구수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국제결혼 남성들이 한국인 부부의 남편들과 동일한 경제력과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다면 갈등의 정도가 오히려 낮을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부인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갈등에 부부간 연령 차이와 가구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4명의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을 질적 방법으로 조사한 홍달아기와 채옥희(2006)의 연구에서도 부부간 큰 연령 차이와 국제결혼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부부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은 한국의 연령에 의한 위계질서와 남성우월주의로 인해 부부간의 큰 연령 차이는 남편의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들의 절반 이상이 주관적인 경제수준을 하위로 지각하고 있으며 상위로 지각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실망을 추정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국제결혼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부부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주여성의 연령과 한국어 능력은 부부관계에서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되어 부부간 불평등과 부부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제결혼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결혼이주여성의 국제결혼을 선택한 경제적 이유와 맞물려 부부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으로부터의 학대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채옥희와 홍달아기(2008)의 연구에서와 같이 국제결혼가정에서의 학대는 아내의 남편학대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부부의 인구사회학 특성의 차이가 부부간 피학대경험에 지니는 영향력을 분리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즉, 국제결혼가정의 남편에 의한 아내학대는 상대적 자원이론에 근거하여 아내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경제적 자원부족과 아내의 나이 어림과 한국어 능력부족이라는 자원부족이 결합한 가정 내 역기능으로 설명

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내에 의한 남편학대는 좌절-공격이론에 근거하여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이주한 여성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혼생활에 대한 좌절을 남편에 대한 공격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가 국제결혼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혼율을 낮추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Ⅲ.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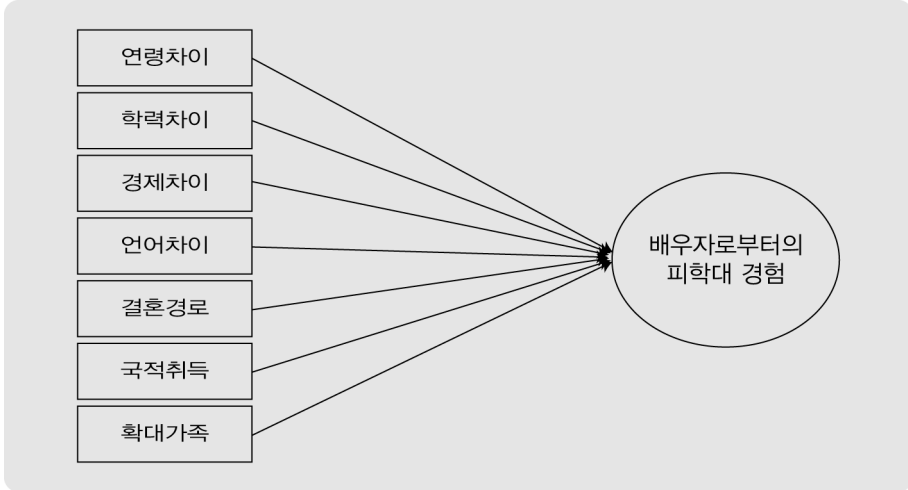
1. 연구대상

통계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2009년 본 연구자들이 실시한 ‘다문화가족의 일상생활문제에 관한 조사’에서 발췌하였다. 조사대상자는 한국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이 무작위로 충청남도 16개 지역을 선정한 후,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의 남편 또는 부인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 지역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책임자를 통해 배포 및 회수하였다. 조사대상자에게는 조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약속하고, 이에 동의를 구한 남편 또는 부인이 조사에 응답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상대적 자원가설 및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부부간 차이 등에 관한 인구학적 요인이 피학대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응답자의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학력차이, 월 수입차이, 언어차이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차이와 중개업자를 통한 결혼 여부, 국적취득 여부, 가족형태이며, 종속변수는 배우자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다.

그림 1. 연구모형



3. 측정도구

가. 인구사회학적 요인

부부간 차이 등에 관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있어서 먼저 연령의 경우, 남편과 부인의 차이에 대한 절대 값을 ‘연령차이’로 하였다. 학력과 수입에 대해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고학력과 고수입을 의미하는데 부부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그 절대 값을 ‘학력차이’, ‘경제차이’로 하였다. 남편의 아내 모국어 능력과 부인의 한국어 능력에 대해서는 이해, 말하기, 읽기, 쓰기에 관한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 4단계(0~3점)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4문항 1요인 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 남편의 아내 모국어 능력에 대한 합산점수와 부인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합산점수의 차이를 산출하여 그 절대 값을 ‘언어차이’로 사용하였다. 그 밖의 요인으로 ‘결혼경로’에 대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을 1로 그 외 결혼은 0으로 코딩하였고, ‘국적취득’에 대해서는 한국국적을 취득했다는 1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0으로 코딩하였다. ‘가족형태’는 부부 혹은 자녀 이

외의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는 1로 부부 혹은 부부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은 0으로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나. 배우자로부터의 피학대 경험

배우자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영주 외의 연구(2009)에서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인된 척도를 사용하였다¹⁾. 본 연구에 사용된 배우자로부터의 학대 경험척도는 심리적 피학대, 언어적 피학대, 방임, 사회적 피학대, 성적 피학대, 경제적 피학대, 신체적 피학대 등 7영역에 대하여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일반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구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자료 적합도는 Comparative Fit Index(CFI)와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으로 판단하였다. 분석모형의 표준화계수(경로계수)에 대한 유의성은 비표준화계수를 표준오차로 뺀 값(이하 t값)의 절대치가 1.96 이상(5% 유의수준)을 나타내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분석에는 SPSS 12.0과 Mplus 2.01을 사용하였다. 또한 회수된 912명(남편: 580명, 부인: 332명)의 데이터 중, 남편 또는 부인의 기본적 속성, 가족구성, 결혼경로, 피학대 경험 등 모든 문항에 응답한 589명(남편: 415명, 부인: 174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특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조사에 응답한 결혼이주 여성의 평균연령은 30세로 배우자 평균연령 42세와 비교해서 약 12세 차이가

1) 측정도구 개발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김영주 외(2009)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한 한국남성 조사에서 본인의 평균연령은 41.5세로 배우자 평균연령 29.2세와 비교해서 약 12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남편과 부인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다. 한편, 초등학교 졸업 이하와 2년제 대학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 모두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보다 높게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의 학력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에서는 결혼이주여성 본인의 경우 45.4%가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국제결혼 한 한국남성 조사에서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4.3%였다.

표 1. 국제결혼가정 부부의 연령, 학력, 월수입 특성

(단위: 세, 명, %)

구분		결혼이주여성 응답자(n=174)		국제결혼 한국남성 응답자(n=415)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연령	최소값	21	30	23	19
	최대값	52	59	60	51
	평균	30.0	42.3	41.5	29.2
	(표준편차)	(6.9)	(5.6)	(5.6)	(7.0)
학력	초등졸업 이하	14(8.0)	11(6.3)	41(9.9)	49(11.8)
	중등졸업	49(28.2)	44(25.3)	63(15.2)	111(26.7)
	고등졸업	58(33.3)	89(51.1)	231(55.7)	163(39.3)
	2년제 대학 이상	53(30.4)	30(17.2)	80(19.3)	92(22.1)
월수입	없음	79(45.4)	9(5.2)	18(4.3)	267(64.3)
	100만원 미만	49(28.2)	49(28.2)	94(22.7)	126(30.4)
	100~200만원 미만	37(21.3)	97(55.7)	199(48.0)	18(4.3)
	200만원 이상	9(5.1)	19(10.9)	104(25.0)	4(1.0)

응답자의 가정의 가족형태와 결혼경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국적 취득특성은 <표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국제결혼가정의 가족형태는 결혼이주여성 응답자의 경우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형태가 43.7%로 가장 많고, 이를 포함하여 핵가족인 경우가 53.5%로 확대가족 형태보다 많았다. 반면, 국제결혼 남성의 경우는 본인의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형태가 37.1%로 가장 많고, 핵가족인 경우가 44.6%로 확대가족 형태가 많았다. 결혼경로를 분석한 결과 결혼이주 여성 응답자와 국제결혼 남성 응답자 모두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한 비율이 각각 40.8%와 43.9%로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 국제 결혼한 친구소개로 만나 결혼한 경우가 각각 20.1%와 15.4%로 높게 나타났다. 국제결혼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국적 취득현황을 살펴본 결과 결혼이주여성 응답자의 경우 29.9%가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결혼 한국남성 응답자 배우자의 경우는 21.1%만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가족형태, 결혼경로 및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국적취득 현황

(단위: 명, %)

구분		결혼이주여성 응답자 (n=174)	국제결혼 한국남성 응답자 (n=415)
가족 형태	부부	17(9.8)	53(12.8)
	부부+자녀	76(43.7)	132(31.8)
	부부+자녀+남편 부모	50(28.7)	154(37.1)
	부부+자녀+기타	31(17.8)	76(18.3)
결혼 경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71(40.8)	182(43.9)
	종교단체의 소개를 통해	27(15.5)	43(10.4)
	한국에 있는 가족, 친지소개로	25(14.4)	62(15.4)
	국제 결혼한 친구소개로	35(20.1)	64(15.4)
	기타	16(9.1)	64(15.4)
국적 취득	취득함	52(29.9)	88(21.1)
	취득안함	122(70.1)	327(78.8)

2. 주요 변수들의 응답분포 및 모형 적합도

국제결혼가정의 배우자 모국어에 대한 언어능력을 질문한 결과 <표 3>과 같다. 언어 능력에 대한 4개 측정문항의 1요인 모형 적합도는 결혼이주여성 조사와 국제결혼 한국 남성 조사를 합친 데이터(n=589)로 확인하였다. 아내의 한국어 능력은 CFI=0.993, RMSEA=0.330, 남편의 아내 모국어능력은 CFI=0.996, RMSEA=0.271로 RMSEA 수치가 나뉘었으나 모형을 수정한 결과, CFI=1.000, RMSEA=0.001로 통계학적인 허용 수준을 충족시켰다.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는 아내모국어에 대한 능력이 0.924, 부인의 한국어능력이 0.897로 나타났다.

표 3. 국제결혼가정 부부의 배우자 모국어에 대한 의사소통능력

(단위: 명, %)

구분	전혀 못한다	잘 못한다	조금 할 수 있다	잘 한다
<결혼이주여성 조사(n=174)>				
본인의 한국어 능력				
이해능력	1(0.6)	15(8.6)	121(69.5)	37(21.3)
말하기 능력	9(5.2)	16(9.2)	111(63.8)	38(21.8)
읽기 능력	3(1.7)	31(17.8)	99(56.9)	41(23.6)
쓰기 능력	14(8.0)	19(10.9)	101(58.0)	40(23.0)
남편의 본인 모국어 능력				
이해능력	75(43.1)	56(32.2)	33(19.0)	10(5.7)
말하기 능력	89(51.1)	46(26.4)	31(17.8)	8(4.6)
읽기 능력	98(56.3)	55(31.6)	16(9.2)	5(2.9)
쓰기 능력	106(60.9)	37(21.3)	26(14.9)	5(2.9)
<국제결혼 한국남성조사(n=415)>				
부인의 한국어 능력				
이해능력	5(1.2)	36(8.7)	223(53.7)	151(36.4)
말하기 능력	6(1.4)	35(8.4)	221(53.3)	153(36.9)
읽기 능력	19(4.6)	70(16.9)	209(50.4)	117(28.2)
쓰기 능력	10(2.4)	43(10.4)	252(60.7)	110(26.5)
본인의 부인 모국어 능력				
이해능력	159(38.3)	117(28.2)	91(21.9)	48(11.6)
말하기 능력	165(39.8)	119(28.7)	93(22.4)	38(9.2)
읽기 능력	253(61.0)	76(18.3)	55(13.3)	31(7.5)
쓰기 능력	253(61.0)	77(18.6)	57(13.7)	28(6.7)

또한 의사소통능력의 합산점수는 남편의 아내 모국어에 대한 능력이 평균 3.2점(표준편차 3.4), 부인의 한국어 능력이 평균 3.5점(표준편차 2.5)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가정 부부의 배우자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은 <표 4>와 <표 5>와 같다.

‘심리적 피학대’, ‘언어적 피학대’, ‘피방임’, ‘사회적 피학대’, ‘성적 피학대’, ‘경제적 피학대’, ‘신체적 피학대’를 7요인 모형으로 가정하고, 이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모형수정을 통해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남편의 피학대 경험은 CFI가 0.987, RMSEA가 0.028, 부인의 피학대 경험은 CFI가 0.999, RMSEA가 0.022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켰다. 모형의 신뢰성을 살펴본 결과, 남편의 피학대 경험의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는 0.895였고, 학대영역별로 KR-20 신뢰성계수를 산출한 결과, ‘심리적 피학대’가 0.784, ‘언어적 피학대’가 0.730, ‘피방임’이 0.682, ‘사회적 피학대’가 0.729, ‘성적 피학대’가 0.594, ‘경제적 피학대’가 0.656, ‘신체적 피학대’가

표 4. 국제결혼 한국남성의 배우자로부터의 피학대 경험

(단위: 명, %)

피학대 경험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	드물게 있다	종종 있다
<심리적 피학대>			
내가 말한 것은 전혀 믿지 않는다.	199(48.0)	171(41.2)	45(10.8)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를 취한다.	271(65.3)	119(28.7)	25(6.0)
장시간 어떤 때는 며칠 동안 나를 무시한다.	329(79.3)	74(17.8)	12(2.9)
아내 자신이 잘못했어도 나에게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	284(68.4)	109(26.3)	22(5.3)
<언어적 피학대>			
나와 헤어지면 자살하겠다고 거짓말한다.	398(95.9)	13(3.1)	4(1.0)
나에게 아이들과 집안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406(97.8)	7(1.7)	2(0.5)
나의 결점이나 버릇을 지적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든다.	377(90.8)	27(6.5)	11(2.7)
내가 죄책감을 가질 만한 말을 반복한다.	362(87.2)	42(10.1)	11(2.7)
<피방압>			
나의 식사횟수를 제한하거나 식사를 거리게 한다.	387(93.3)	21(5.1)	7(1.7)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도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사주지 않는다.	383(92.3)	27(6.5)	5(1.2)
이탈하려 갈 기회를 주지 않는다.	407(98.1)	5(1.2)	3(0.7)
나를 집에 방치한 채, 며칠동안 연락도 없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	404(97.3)	5(1.2)	6(1.4)
<괴사회적 학대>			
나의 인간관계나 교우관계까지 체크한다.	367(88.4)	40(9.6)	8(1.9)
전화나 편지발신자 및 내용을 캐묻는다.	330(79.5)	70(16.9)	15(3.6)
자유로운 외출을 허락하지 않는다(방해한다)	349(84.1)	52(12.5)	14(3.4)
나의 행동을 하루종일 감시한다.	389(93.7)	18(4.3)	8(1.9)
<성적 피학대>			
성관계를 강요한다.	384(92.5)	24(5.8)	7(1.7)
포르노를 억지로 보여준다.	403(97.1)	9(2.2)	3(0.7)
특별한 행위를 강요한다.	405(97.6)	7(1.7)	3(0.7)
이상할 정도로 질투한다.	383(92.3)	24(5.8)	8(1.9)
<경제적 피학대>			
용돈을 주지 않는다.	393(94.7)	16(3.9)	6(1.4)
내가 맡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390(94.0)	20(4.8)	5(1.2)
내 귀중품 등 가치 있는 물건을 의논없이 판다.	403(97.1)	6(1.4)	6(1.4)
생활비를 마음대로 쓴다.	373(89.9)	28(6.7)	14(3.4)
<신체적 피학대>			
나를 손톱으로 할퀴는다.	400(96.4)	12(2.9)	3(0.7)
나에게 물건을 던진다.	391(94.2)	19(4.6)	5(1.2)
주먹으로 내 머리나 얼굴을 때린다.	398(95.9)	12(2.9)	5(1.2)
나를 꼬집는다.	367(88.4)	41(9.9)	7(1.7)

0.736이었다. 한편, 부인의 피학대 경험의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는 0.947이었고, 학대영역별로 KR-20 신뢰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심리적 피학대'가 0.857, '언어적

피학대'가 0.845, '피방임'이 0.782, '사회적 피학대'가 0.839, '성적 피학대'가 0.787, '경제적 피학대'가 0.736, '신체적 피학대'가 0.939로 나타났다.

표 5.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로부터의 피학대 경험

(단위: 명, %)

피학대 경험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	드물게 있다	종종 있다
<심리적 피학대>			
나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에 대해 모르는 척 한다.	120(69.0)	42(24.1)	12(6.9)
가족의 중요한 의사결정 시 나를 의도적으로 제외시킨다.	111(63.8)	51(29.3)	12(6.9)
내가 사과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140(80.5)	29(16.7)	5(2.9)
장시간, 어떤 대는 며칠동안 나를 무시한다.	120(69.0)	44(25.3)	10(5.7)
<언어적 피학대>			
나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모욕한다.	152(87.4)	21(12.1)	1(0.6)
나를 부를 때 모욕적인 말을 사용한다.	155(89.1)	17(9.8)	2(1.1)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145(83.3)	22(12.6)	7(4.0)
내가 죄책감을 가질 만한 말을 반복한다.	151(86.8)	17(9.8)	6(3.4)
<피방임>			
병원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병원에 보내주지 않는다.	153(87.9)	14(8.0)	7(4.0)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도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사주지 않는다.	136(78.2)	28(16.1)	10(5.7)
나에게 미용실에 갈 기회를 주지 않는다.	152(87.4)	15(8.6)	7(4.0)
한국 국적 취득에 동의하지 않는다.	165(94.8)	9(5.2)	0(0.0)
<사회적 피학대>			
내가 이웃과 사귀는 것/왕래를 금지한다.	158(90.8)	15(8.6)	1(0.6)
나의 인간관계나 교우관계까지 체크한다.	145(83.3)	24(13.8)	5(2.9)
나의 자유로운 외출을 허락하지 않는다(방해한다).	146(83.9)	25(14.4)	3(1.7)
나의 행동을 하루종일 감시한다.	156(89.7)	15(8.6)	3(1.7)
<성적 피학대>			
나에게 성관계를 강요한다.	151(86.8)	17(9.8)	6(3.4)
내가 원해도 피임에 협력하지 않는다.	147(84.5)	19(10.9)	8(4.6)
임신을 피한다.	159(91.4)	14(8.0)	1(0.6)
나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질투한다.	157(90.2)	15(8.6)	2(1.1)
<경제적 피학대>			
나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	129(74.1)	28(16.1)	17(9.8)
나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	131(75.3)	31(17.8)	12(6.9)
나의 동의나 허가 없이 나의 소지품을 버린다.	160(92.0)	13(7.5)	1(0.6)
나의 귀중품 등 가치 있는 물건을 의논없이 판다.	166(95.4)	6(3.4)	2(1.1)
<신체적 피학대>			
나를 기둥이나 의자에 묶는다.	168(96.6)	5(2.9)	1(0.6)
나를 발로 찬다.	162(93.1)	7(4.0)	5(2.9)
나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긴다.	166(95.4)	6(3.4)	2(1.1)
나에게 침을 뱉는다.	165(94.8)	7(4.0)	2(1.1)

피학대 경험의 영역별 합산점수를 살펴본 결과, 남편의 피학대 경험에서는 ‘심리적 피학대’가 평균 1.4점(표준편차 1.4), ‘언어적 피학대’가 평균 0.3점(표준편차 0.8), ‘피방임’이 평균 0.2점(표준편차 0.6), ‘사회적 피학대’가 0.5점(표준편차 1.0), ‘성적 피학대’가 평균 0.2점(표준편차 0.6), ‘경제적 피학대’가 평균 0.2점(표준편차 0.7), ‘신체적 피학대’가 평균 0.3점(표준편차 0.7)이었다. 영역 중 심리적 피학대 경험이 평균 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인의 피학대 경험에서는 ‘심리적 피학대’가 평균 1.2점(표준편차 1.5), ‘언어적 피학대’가 평균 0.5점(표준편차 1.1), ‘피방임’이 평균 0.5점(표준편차 1.0), ‘사회적 피학대’가 0.5점(표준편차 1.1), ‘성적 피학대’가 평균 0.5점(표준편차 1.0), ‘경제적 피학대’가 평균 0.6점(표준편차 1.1), ‘신체적 피학대’가 평균 0.2점(표준편차 0.8)이었다. 심리적 피학대 경험점수가 평균 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연구모형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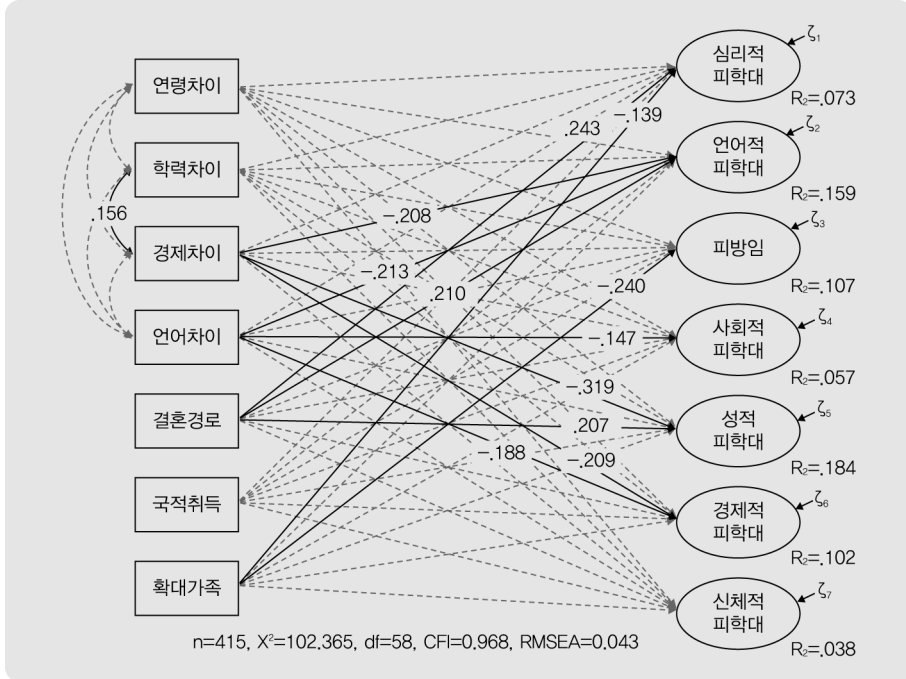
부부간 차이 등의 인구학적 요인이 피학대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이 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편의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CFI가 0.968, RMSEA가 0.043였고, 부인의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CFI가 0.993, RMSEA가 0.046으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연구모형 적합도

모형	df	χ^2	CFI	RMSEA
국제결혼 한국남성조사(n=415)	58	102.365	0.968	0.043
결혼이주여성 조사(n=174)	41	55.790	0.993	0.046

남편의 피학대 경험과 부부간 인구사회학적 요인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남편의 피학대 경험의 관계(표준화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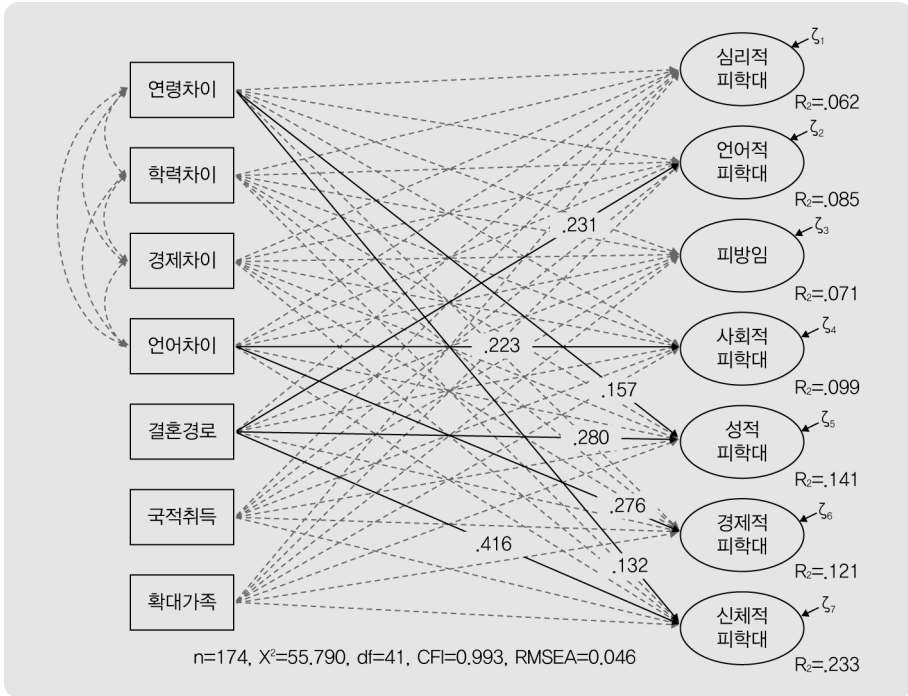


주: 1) 모형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각 잠재변수의 지표관측변수와 그에 대한 오차변수는 생략함.
 2) 피학대에 대한 요인 오차간 상관표시를 생략함. 모든 상관계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차이’, ‘언어차이’, ‘중개업자를 통한 결혼’, ‘확대가족’이 남편의 아내로부터의 학대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부부간 경제차이가 작을수록, 부인에게서 언어적 학대($\beta = -0.208$), 성적 학대($\beta = -0.319$), 경제적 학대($\beta = -0.209$)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었고, 부부간 언어차이가 작을수록, 부인에게서 언어적 학대($\beta = -0.213$)와 사회적 학대($\beta = -0.147$), 경제적 학대($\beta = -0.188$)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한 남편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부인으로부터 심리적 학대($\beta = 0.243$), 언어적 학대($\beta = 0.210$), 성적 학대($\beta = 0.207$)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형태가 핵가족 상태인 남편이 부인으로부터 심리적 학대($\beta = -0.139$)와 방임($\beta = -0.240$)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으로부터의 학대경험과 부부간 인구사회학적 요인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인구사회학적 차이 및 환경요인과 부인의 피학대 경험의 관계(표준화 계수)



주: 1) 모형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각 잠재변수의 지표관측변수와 그에 대한 오차변수는 생략함.
 2) 피학대에 대한 요인 오차간 상관표시를 생략함. 모든 상관계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차이’, ‘언어차이’, ‘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이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으로부터의 학대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부부간 연령차이가 클수록, 남편에게서 성적 학대($\beta = 0.157$)와 신체적 학대($\beta = 0.132$)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부간 언어차이가 클수록, 남편으로부터 사회적 학대($\beta = 0.223$)와 경제적 학대($\beta = 0.276$)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한 부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남편으로부터 언어적 학대($\beta = 0.231$)와 성적 학대($\beta = 0.280$), 신체적 학대($\beta = 0.416$)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최근 다발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내 폭력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상대적 자원이론과 좌절-공격이론을 바탕으로 부부간 차이 등의 인구학적 요인과 피학대 경험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분석대상은 회수된 912명의 데이터 중 분석에 사용한 모든 문항에 응답한 589명(남편 415명, 부인 174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표본 수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유효한 표본수라고 판단되었다. 또한 분석에 사용한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한 분석결과가 얻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부부간 차이 등에 관한 인구학적 요인이 남편과 아내의 피학대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을 구축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토한 결과, 부인의 피학대 경험에 대해서는 부부간 연령 차이와 언어 차이가 크고,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한 경우가 남편에게서 학대를 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 부부간 연령차이가 클수록, 남편으로부터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2) 부부간 언어차이가 클수록 남편으로부터 사회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를, 3)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한 경우, 남편에게서 언어적 학대와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학대경험이 높으며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결혼과정 자체가 부부 간에 권력의 우열화를 만들어냄으로써 결혼생활전반에 다양한 폭력상황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변화순 외, 2008; 김오남, 2006a; 三澤壽美 외, 2008). 연령의 경우, 남편이 연상, 부인이 연하인 경우, 부부간 권력관계 속에서 남편이 우위를 점하여 남편이 학대하는 쪽으로 부인이 학대받는 쪽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생각된다. 상대적 자원가설에 의하면, 부부간 권력관계는 가부장적인 개념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자원(comparative resources)을 기초로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Blood & Wolfe, 1960). 즉, 상대적 자원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내가 기대하는 수준의 사회경제적 자원을 소지하지 못한 국제결혼 남성의 경우 아내 학대를 통해 자신의 자원을 충족시키고자 하며, 이러한 현상은 한국문화에서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연령과 한국어 능력이라는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소지하고 있을수록 즉, 아내가 어릴수록,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어진

다. 또한 결혼과정이 소개나 연애가 아닌 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일수록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욕구가 높을 것으로 가정할 때 중개결혼일수록 남편에 의한 아내학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국제결혼 부부 갈등 중에서 남편에 의한 아내학대가 상대적 자원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남편의 피학대 경험에 대해서는 경제차이와 언어차이가 작고,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한 경우, 핵가족인 경우가 부인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 부부간 경제차이가 작을수록, 부인으로부터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를, 2) 부부간 언어차이가 작을수록, 부인으로부터 언어적 학대, 사회적 학대, 경제적 학대를, 3)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한 경우가 부인으로부터 심리적 학대,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를, 4) 핵가족인 경우가 부인으로부터 심리적 학대와 방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한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논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은 남편의 아내학대와 마찬가지로 아내의 남편학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에서는 아내를 부부관계에 있어 약자의 상황에 빠뜨리고, 어떤 경우에는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이주해온 여성의 욕구좌절에 따른 남편학대라는 역기능 현상을 일으키는 등 쌍방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결혼경로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제정한 ‘국제결혼중개업관리법’은 주로 한국인 남성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받는 허위정보에 대한 피해보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결혼생활 중에 나타나는 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후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자국민인 한국인 남성에게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핵가족인 경우에 부인의 남편학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부보다 우세한 입장에 있는 윗 어른을 모시고 사는 확대가족은 결혼이주 여성의 욕구좌절로 인한 공격성 표출을 억압시키는 환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앞서 기술한 남편의 아내학대와는 다르게 경제차이 및 언어차이가 작을수록, 남편은 아내로부터 학대를 당한다는 점이다. 이는 상대적 자원이론에 근거하여 설명될

수 있다. 즉, 국제결혼가정에서 남편이 비교우위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부간 경제적, 언어적 자원의 차이가 적다는 것은 아내가 비교적 경제적, 언어적 자원을 많이 획득한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권력으로 작용하여 사회경제적 자원을 적게 소지한 남편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 자원이론은 왜 결혼이주 여성이 자신이 획득한 자원을 남편 학대라는 역기능적 행동으로 교환하였는가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좌절-공격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좌절-공격이론에 기반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한 결혼이주 여성이 경험하는 좌절 즉,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회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결혼생활을 겪으면서 경험하는 좌절이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소지한 무능한 남편에 대한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욕구좌절의 원인을 외부요인 즉 남편의 무능력으로 인식하고 핵가족과 같이 공격성 표출에 대한 장애요인이 없을 경우 더 많이 표출된다고 이해되어진다.

마지막으로, 학력차이와 국적취득 여부의 경우, 남편과 부인 어느 쪽에서도 피학대 경험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로 학력차이의 경우, 연령, 경제상황, 언어능력과는 달리 현시점에서의 차이만이 아니라 국제결혼가정에게 있어서 과거시점의 차이, 즉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학력이라는 자원이 부부간의 우세와 열세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영주권과 국적취득 여부의 경우, 체류자격이 불안정하다는 상황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이 발생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예를 들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가, 아니면 참는가)와 관계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피학대 경험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수 가운데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결혼 변수를 제외하면, 그 외의 변수들의 경로계수는 -0.319에서 0.276(기여율 3.8%에서 12.1%)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국제결혼가정의 가정폭력 및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새로운 요인들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Berkowitz(1993)의 ‘가정폭력 촉진요인모델’에서는 가정폭력을 촉진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 요인을 들고 있는데 그러한 요인들로는 공격성, 규범과 가치관, 자존감, 사회적 기술, 음주습관이 있다. 따라서 추후 이러한 요인들과 가정폭력과의 관계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부부갈등은 부부간 문화적 적응이라고 하는 요인을 고려해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부부간 발생하는 피학대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부간 차이 등에 관한 인구학적 요인을 통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 자원이론과 좌절-공격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경제적인 요인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국제결혼 부부간 갈등의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부간 차이 등과 관련한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은 ‘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을 제외하면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앞으로 국제결혼가정의 부부간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단기간에 결혼이 성사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허위 정보 및 정보의 은폐로 인해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 부부간 피학대 경험을 남편과 아내를 분리하고 각각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결혼과정 등의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를 해석하여 제시함으로써 국제결혼 부부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부부간 폭력에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국제결혼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문화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국제결혼 부부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부부갈등을 인구사회학적 변수만으로 단순화시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문적으로는 피학대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 예를 들면, 당사자의 공격성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국제결혼이라고 하는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모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천적으로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국제결혼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차이를 극복하고 보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과 모형개발 연구를 추후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현옥, 황혜원(2009). 여성결혼이민자가 인지하는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1, pp.55-78.
- 국적법(2010. 5. 4, 일부개정, 법률 제10275호).
- 김두섭(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29(1), pp.25-56.
- 김두섭, 이명진(2007).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과 결혼 안정성, 한국인구학, 30(3), pp.33-56.
- 김순이(2009). 다문화가정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안산시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서울.
- 김영주, 나카지마 카즈오, 류한수, 윤정수(2009). 충남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 실태 및 가족지원 정책개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김오남(2005).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서울.
- _____(2006a). 결혼이민자가족의 아내학대와 영향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지학, 58(4), pp.5-35.
- _____(2006b).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pp.33-76.
- 박애경(2005). 가정폭력의 실태와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아내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서울.
- 변화순, 이미정, 김혜영, 황정미, 이선형(2008).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서미경(1997). 정신분열병 환자의 부모폭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서한기(2007.10.26). ‘매 맞는 남편’, 학대받는 노인 - 아동 앞질렀다. 연합뉴스,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view.html?cateid=100011&newsid=20071026060211374&p=yonhap>에서 인출.
- 여성복지부(2010).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주요조사결과. 서울: 여성가족부.

- 윤현봉(1985). 부부간의 권력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R. 블러드와 D. 울프의 상대적 자원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사회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병기(2008). 한일 국제결혼 부부의 문화적응과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순천.
- 임인숙, 강충구, 전병희(2010). 국제결혼 경로별 부부권력과 부부관계 만족도 - 경기도 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 가족과 문화, 22(1), pp.35-63.
- 윤순자(1999). 구타당하는 아내들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행정학과,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산.
- 장주영(2007). 결혼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탐색. 석사학위논문, 아동가족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조윤오(2010). 다문화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18(1), pp.159-183.
- 채옥희, 홍달아기(2005). 국제결혼부부의 갈등과 대처에 대한 연구. 생활자원개발연구, 7, pp.1-17.
- _____ (2008). 피해사례를 통해서 본 결혼이민자남편의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pp.891-902.
- 통계청(2010).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대전: 통계청.
- 홍달아기, 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지, 15(5), pp.729-741.
- 三澤寿美, 川崎佳代子, 西脇美香, 遠藤恵子(2008). A県におけるDV(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現状の明確化 背景にある家族関係に焦点を当てて. 日本母子看護学会誌, 2(1), pp.46-54.
- Berkowitz, L.(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McGraw-Hill.
- Blood, R. O., Wolfe, D. M.(1960). *Husbands and Wives: The Dynamics of Married Living*. New York : Free Press.
- Dollard, J., Miller, N. E.(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Hovey, J. D., Magana, C. G.(2000). Acculturative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Mexican immigrant farmworkers in the Midwest United States. *Journal of Immigrant Health*, 2(3), pp.119-131.

Nah, K. H.(1993). Perceived problems and service delivery for Korean immigrants. *Social Work*, 38(3), pp.289-296.

나카시마 노조미는 일본 오카야마현립대학에서 보건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동대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고령자복지, 가족복지, 사회조사이며, 현재 남성개호자, 고령자 건강, 다문화가족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himan99@live.jp)

박인아는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전임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가족복지이며, 현재 다문화가족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iapark@honam.ac.kr)

박지선은 일본 오카야마현립대학에서 보건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동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가족복지이며, 현재 남성의 육아참가, 가정폭력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lundy0102@hotmail.com)

김정숙은 다시사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교육담당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복지, 지역사회복지이며, 현재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진단 방법,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복지마을 만들기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jsuk1009@korea.kr)

나카지마 카즈오는 일본 쇼와대학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오카야마현립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가족정책이며, 현재 역할을 기초로 한 가정폭력에 관한 발생 매커니즘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kazuo@fhw.oka-pu.ac.jp)

The Relations between Abuse Experiences in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and Social-Demographic Factors

Nakashima, Nozomi

(Okayama Prefectural
University)

Park, In A

(Honam University)

Park, Ji Sun

(Okayama Prefectural
University)

Kim, Jung Suk

(Gyeongsanam-do Women's Development
Center)

Nakajima, Kazuo

(Okayama Prefectural University)

This survey research purposed to build a relation model between abuse experiences occurring in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and social-demographic factors such as differences between husband and wife based on the relative resource theory and the frustration-aggression theory, and to test the validity of the model.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multi-cultural family husbands and wives living in 16 areas of Chungcheongnam-do in 2009. Statistical analyses used data collected from 589 people (415 husbands, 174 wives) who replied all the questions on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husband and wife, family type, marriage path, and abuse experience. When the goodness-of-fit of the research model for data was tested, CFI and RMSEA of the model were 0.968 and 0.043, respectively, for husband data, and 0.993 and 0.046, respectively, for wife data, satisfying statistically acceptable standards. Husbands' abuse experi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fected by economic difference from wife, language difference, marriage through an international matchmaking agency, and extended family. Wives' abuse experi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fected by age difference from husband, language difference, and marriage through an international matchmaking agency. The path coefficients between these factors and abuse experience were not so high except that for marriage through international matchmaking agency.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prevent abuses in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supervision should be strengthened over marriages arranged in a short time and based on wrong information by international matchmaking agencies.

Keywords: Multi-cultural Family, Abuse Experiences, International Matchmaking Agency, Differences between Husband and Wife